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1. 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테러 위협단계 '심각'에서 '중대'로 하향 조정
 - 11.4 英내무부는 맨체스터 공연장 폭탄테러('17.5월, 사망 22)를 계기로 '17.9월부터 '심각'으로 유지해 왔던 테러위협단계*를 '중대'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
 - * 낮음(low) → 중간(moderate) → 중대(substantial) → 심각(severe) → 위기(critical)
- 佛, '20년까지 말리에 自國 특수부대 배치 예정
 - 11.5 프랑스 국방장관은 사헬지역 안보강화를 위해 '20년까지 말리에 佛특수부대와 유럽의 신설 특수작전팀을 공동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

미 주

- 美-터키,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ISIS 소탕방안 논의 예정
 - 11.6 AP통신은 「트럼프」 대통령 초청으로 「에르도안」 대통령이 11.13 미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, “「알 바그다디」 사망 이후 ISIS 소탕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”이라고 보도

아 프 리 카

- 소말리아, 알샤바브 수장 영상 최초 공개
 - 11.5 VOA는 알샤바브가 소말리아內 美공군기지 습격(9.30) 조직원을 독려하는 「아부 우베이다」 영상비디오를 최초 공개했다고 보도
 - * 同인의 손과 어깨는 노출됐으나,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(美 600만弗 현상수배중)

아 · 태평양

○ 국정원, 올해 테러 위험인물 26명 강제퇴거 조치

- 11.4 국정원은 올해 1~10월 테러위험 인물 26명을 적발하여 강제 퇴거*하였으며, 난민지위 신청자 중에도 SNS에 테러단체 지지글 게시자에 대해 테러단체 연계 여부를 검증하는 등 테러위험 인물의 국내침투 차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라고 언급

* '16년 7명, '17년 17명, '18년 21명, '19년(10월 현재) 26명 등 지속 증가

○ 印尼, 이슬람식 여성 복장 베일 착용시 관공서 출입 제한 추진

- 11.4 인도네시아 당국은 신원확인이 어렵고, 폭발물·무기 등 은닉이 용이한 니캅 등 베일을 착용한 채 관공서를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발표

* 10.10 「위란토」 안보조정장관이 ISIS 추종자의 흉기에 찔린 사건을 계기로 논란

중 동

○ 터키, 시리아內 유럽 출신 ISIS 조직원들에 대한 본국송환 경고

- 11.2 터키 내무장관은 시리아 수용시설에 억류 중인 유럽국 출신 ISIS 소속원들에 대해 “해당 국가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”고 비난 하며, 해당 국가로 송환할 것이라고 경고

* 同시설은 ISIS 조직원 등 1만 2천여명을 수용 중이며, 관련국가들은 이들이 귀국時 자국내 테러위험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 입장 유지

○ 이집트 ISIS 등, 「알 바그다디」 후계자에 충성 맹세

- 11.2 AP통신은 ISIS의 이집트 지부 및 방글라데시 이슬람 무장단체가 지난 10.26 미군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사망한 「알 바그다디」의 후계자 「알 쿠라이시」에게 충성을 다짐했다고 보도

ISIS, 터키內 경찰서 대상 차량 자폭테러

- '16.11.4 터키 남동부의 쿠르드계 지역인 디야르바키르州의 경찰서 인근에서 차량 자폭테러가 발생, 9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
- 당시 터키軍은 ISIS의 거점인 이라크 북부 모술 탈환작전에 적극 참여하는 등 ISIS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던 중이었는데
- ISIS 수괴 「알 바그다디」는 테러발생 前 선전매체 ‘아마크 뉴스통신’을 통해 “터키인들을 양처럼 도살하라(11.3)”고 지시한 바 있으며
 - ISIS는 他지역 테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것과 달리, 同테러 직후에 배후를 자처하며 본격적인 연쇄테러를 예고하는 등 존재감 부각
 - * 아타튀르크 국제공항 자폭테러(6.28), 가지안테프 결혼식장 자폭테러(8.20) 등
 - 같은 해 터키內 ISIS 추정 테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
- 현지언론은 ISIS가 터키의 對ISIS 공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자행한 것으로 평가

< 하피즈(Hafiz) >

- **(정의)** 하피즈(Hafiz)는 ‘보유자’, ‘함유자’의 뜻을 나타내는 아랍어로, 보통 코란을 전부 암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경칭으로 과거에는 법학자 대부분이 하피즈
- **(참고내용)** 무슬림 아이들이 코란학교에 다니며 전체 코란의 암기가 끝나면, 가족은 교사와 학우를 초청해 하마트(Khatmah, 암기완료)를 축하하고 교사는 상당액의 사례를 수령
 - 빠르면 10~12세 정도에 하피즈가 되어 주의 사람들로부터 세이흐(장로)라고 불리며, 이슬람 세계에서 코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하피즈가 된 아이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경우가 대부분
 - 코란은 저절로 이야기 하듯이 외우기가 쉬워 아랍어를 몰라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염송하는 하피즈들도 인도 대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다수 분포